

책 고프던 시절의 기억

시인이 된 어느 '책벌레' 이야기

이향지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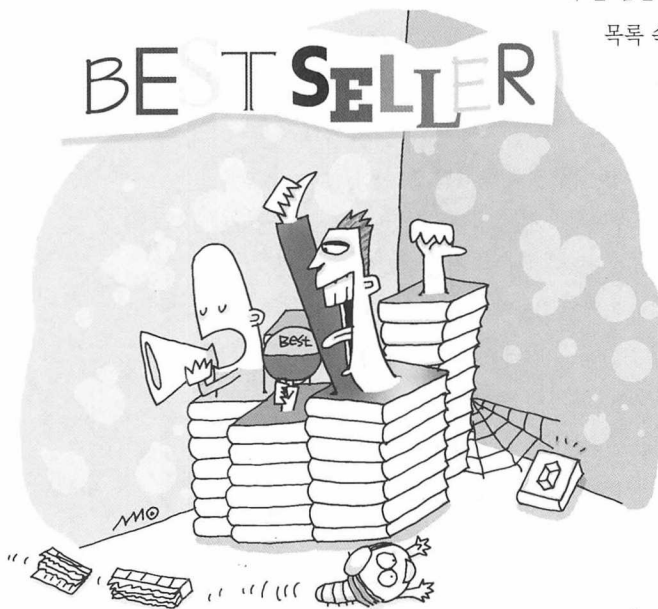
책이 참 흔하다. 흔한 만큼 대접도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읽어주기를 기다리는 책이, 내 앞에도 성(城)처럼 쌓여 있으니 말이다. 남의 책을 빌려다, 종이와 글자를 뜯어먹을 듯이 읽던 날들을 생각하면, 책에게 미안해진다. 책 한권마다에 깃들어 있는, 지은이와 만드인들의 혼신을 다한 정성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나는 '책 고프' 시절을 살았다. 나는 책 고프 아이였다. 한두 해가 아니라 20여년을 책 고프 '헝그리'로 자랐다. 글자를 깨우치게 되자 많은 책을 읽고 싶었지만, 내가 태어난 때는 식민지 말기, 교과서 아닌 내 책을 가져보고 싶었지만, 내가 한창 자라던 때는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1950년대 전후, 몸이 자라고 질문이 늘어갈수록 새로운 책들이 필요했지만, 절대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호기심과 감수성이 가장 왕성하던 10대와 20대를, 나는 책 고프 아이로 살고, 자라야 했던 것이다.

책은 언제나 밥 다음이었다. 학비 다음이었다. 교과서 다음이었다. 교복 다음이었다. 참고서 다음이었다. 학용품 다음이었다. 학비, 교과서, 교복, 참고서, 학용품 값도 제때 충당하지 못할 만큼 어렵던 시절. 그밖의 것들을 꿈꾼다는 것은 일종의 죄였다. 나뿐만 아니라 내 또래 모두가 그렇게 자랐을 것이다. 학교 도서관의 장서들도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국가도 국민도 전쟁 휴유증과 기아의 모면 에 온 힘을 쏟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읽고 싶은 책들은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목록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책읽기가 계속됐다. 어디선가 책이 한권 생기면 모두가 엮어져서 둘러읽었다. 누군가 책 한권을 학교에 가져오면, 누구는 몇 교시까지, 누구는 몇 교시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숨겨놓고 읽다가 들켜서 벌서는 일이 다반사였다. 나도 공부 안하고 소설책 읽다 벌을 몇 번 썼다. 그런 날 선생님은 뒤통수에 눈이라도 붙은 것처럼,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 야속한 선생님! 그럴 때 내려지는 벌은 교실 문밖에 손들고 꿰어앉아 있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읽는 사람 혼자만 서는 벌이 아니라 책 주인과 함께 서는 벌이어서, 나란히 손들고 꿰어앉아서 듣는 "너 답엔 책 안 빌려준다"는 핀잔이 더 큰 벌이었다.

운 좋게 책을 집으로 갖고 오는 날은 밤을 새워 읽었다. 누구는 무슨 요일까지 누구는 며칠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었기에, 어렵게 빌린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던 때였다. 삼십 초 앞전구 불빛도 초저녁에만 잠깐 구경할 수 있던 때였다. 나는 토막 초를 보이는 대로 주워 모았다. 책 읽는 데 썼다. 달빛에 읽거나 반딧불이를 모아서 책을 읽었다는 고사들을 떠올렸지만, 그때의 책들은 붓으로 먹물 찍어 큼직큼직하게 썼던 글자들의 모습 아닌가. 작은 활자로 촘촘하게 찍어낸 신식 책을 호롱불이나 촛불 아래서 장시간 읽는다는 것은 피로와 위험과 잔소리가 함께 하는 일이기도 했다. "불넌라!" "초 아껴라!" "아직도 안자나?" 이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것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잔소리였다. 대청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듣는 안방문 소리. 그 부드럽게 열리는 미닫이 소리에 귀를 쫓긋 세워서 들어야 했고, 부리나케 촛불을 붙여 끄곤 했다. 쫓다다,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다시 쫓다다, 촛불도 호롱불도 쫓다다 쫓다다 냄새가 났고, 고요한 밤에 성냥 굵는 소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감출 재간이 없었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눈감아주시는 아버지.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밥상 앞에서 들키고 마는 촛불 '퍼머넌트'. 작은 바람에도 필터거리는 촛불에 지지적 타 들어간 앞 머리카락. 그 화상(?)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읽는 책들. 얻어 읽고 빌려 읽고 숨어 읽는 책들이 제대로 읽힐 리가 있었겠는가. 그런 류의 헝그리 독서는 내 책을 갖고 싶다는 갈망을 더욱 부추겼다. 그러다 드디어 내 책을 두 권 갖게 됐는데, 중3때던가, 고1때던가, 학용품 값을 조금 더 부풀려 받아서 산, 소월 시집 <초혼>과 하이네 시집이 그것이었다. 두 책 가운데 <초혼>을 특히 좋아해서 어떤 날은 가슴에 품고 자기도 했다. 내 시의 음악성은 그때 소월과 깊이 친하면서 전염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그런지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초혼>은 술술 읽힌다.

그 전까지 내가 접할 수 있었던 시들은 교과서에 실린 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해주시는 시, 친구들이 어디선가 베껴온 시를 다시 베껴온 것, 그런 정도가 전부였다. 나는 그런 시들을 노트를 따로 만들어 필사해서 읽었다. 종이에 베껴 써서, 벽에 붙여놓고 외웠다. 그러다 내 책이 생겼으니, 누웠을 때 잘 보이는 벽에는 <초혼>, 앉았을 때 잘 보이는 벽에는 <산유화>... 이런 식으로 써 붙여놓고 눈맞추며 외웠다. 지금 흔하디 흔하고 팔리지 않는 시집들을 생각하면, 그때 나의 시와 시집 읽기는 얼마나 뜨거운 행위였던가.

나는 이제 책 부자다. 그때에 비하면 그렇다. 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책들이 자주 필요하다. 내 책을 내기도 한다. 아는 이들이 저서를 부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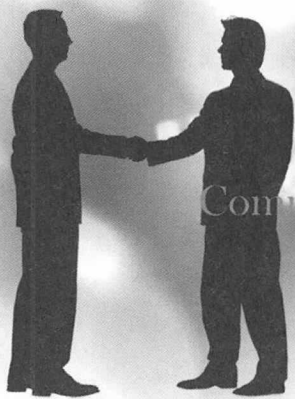
오기도 한다. 빼놓지 않고 읽는 잡지들도 여러가지다. 나의 책 성(城)은 날마다 높이와 부피를 더해간다. 그러나, 나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읽는 일보다 쓰는 일에 매달리는 날들이 더 많다. 이렇다 내 글에서 텅 텅 빈 깡통 소리만 날지 모른다. 초조할 때도 있지만, 그토록 소원하던 책들이 내 둘레에 성곽을 이루고 있으니,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부자처럼 포만감을 느낀다. 아이들은 자라서 곁을 떠났지만, 책들은 성을 쌓고 내 곁을 지켜준다.

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는 책은 아버지가 주신 것들이다. 회귀본들은 아니지만, 실로 묶은 고서들이다. 나는 그것들을 실이 끊어지거나 책장이 떨어지더라도 할세라 벌벌 떨며 아낀다. 출장 길에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이 보이면 사다주시는 것이다. 그 어려운 시절, 그 책들을 나에게 사다 주시기 위해 아버지는 점심을 굶으셨을지도 모른다. 그 끝없이 꿋꿋이 꿋꿋이 있는 나의 책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주시려고, 뼈뺀 한 여비 한 쪽을 도려내셨을 것이다. 나는 그 책들 속에서 아버지를 느끼고, 내가 밤새워 책 읽는 밤이면 대청 건넌방에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없었을 아버지의 걱정을 떠올리고, 한없이 포근해진다.

이제 책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책을 낸다. 많고 흔한 만큼 좋은 책을 가려 읽기가 쉽지 않다. 신문지상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것도 책 광고다. 예전에 약 광고가 판을 칠 때는 사람들이 약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 책을 남용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좋은 것을 좋다고 널리 알리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 좋은 책, 유익한 책들이 광고를 많이 하는 책들에 밀려 그늘로 가라앉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신문에서 띄워주고 광고를 많이 하는 책들이 양서로 인식되는 사례는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어떤 저울과 잣대로 그것을 재고 바로잡고 막을 수 있을까. 책들의 운명이 그 예전 토막 촛불 앞의 내 앞 머리카락 같지 않은가. ●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dp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 / 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서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이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02_325_6260_1 FAX.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